



어린 시절 이 통통하고 친절하고 열정적인 의사, 그리고 그의 동물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돌리틀 박사의 모험 이야기를 읽으며 아프리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인 구달(동물학자, 『희망의 이유』 저자)

지금의 내 영웅이 찰스 다윈이라면 어린 시절의 영웅은 돌리틀 박사입니다. 돌리틀 박사의 모험 이야기들을 몇 번이고 읽으며,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더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동물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여전히 분노하는 것은 분명 돌리틀 박사 덕분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진화생물학자, 『이기적 유전자』 저자)

## 돌리틀 박사의 모험 시리즈(전12권)를 펴내며!

1886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휴 로프팅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공학 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기술자보다는 이야기 작가로 훨씬 더 유명하다. 로프팅은 1차 세계대전에 중위로 참전했다. 그 시절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의사의 모험을 담았고, 이 이야기들이 돌리틀 박사 시리즈 열두 권(두 권은 사후에 출판됨)으로 이어졌다. 그래서인지 이 책들에는 아이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

이 책들의 주인공인 돌리틀 박사는 낙관으로 가득 차 조금은 대책 없는 인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예의 바르고, 정이 많고 무엇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유쾌하고 낙천적인 주인공과 개성 뚜렷한 앵무새, 개, 돼지 등 동물들이 함께 펼치는 모험담은 무척이나 재미있다.

휴 로프팅의 돌리틀 박사 이야기 중 몇몇 권들은 여러 번 우리말로 옮겨져 출판되었지만, 열두 권 전체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침팬지 연구가 제인 구달 등 세계적 과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인생의 책으로 기억되었듯, 우리말로 옮겨진 이 책들도 훗날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구성(전12권)

1. 돌리틀 박사 이야기
2. 돌리틀 박사의 바다 여행
3. 돌리틀 박사의 우체국
4. 돌리틀 박사의 서커스단
5. 돌리틀 박사의 동물원
6. 돌리틀 박사의 캐러밴
7. 돌리틀 박사의 정원
8. 돌리틀 박사, 달 여행
9. 돌리틀 박사, 달에서 돌아오다
10. 돌리틀 박사와 비밀의 호수
11. 돌리틀 박사와 초록 카나리아
12. 돌리틀 박사의 퍼들비 모험



## 생사가 엇갈리는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말과 개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말을 알아들어줄 돌리틀 박사를 떠올린 휴 로프팅!

### 고국의 두 아이에게 돌리틀 박사의 이야기를 쓰고 그려 보낸 편지가 제인 구달과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책이 되다!

돌리틀 박사의 모험' 시리즈 전12권 중 4차분으로 7권 『돌리틀 박사의 정원』, 8권 『돌리틀 박사의 달 여행』이 출간되었다. 그동안 돌리틀 박사 이야기들 중 몇 권은 출간된 적이 있지만, 열두 권 전체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일본 이와나미에서는 1950년대부터 차근차근 펴내기 시작해 현재 열두 권 전권을 세트에 판매하고 있다.

돌리틀 박사의 모험 시리즈는 제인 구달과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들의 인생의 책이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다. 그중 『돌리틀 박사의 바다 여행』은 뛰어난 아동문학작품에 주는 뉴베리 상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돌리틀 박사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동물과 소통하는 능력이다.

돌리틀 박사를 찾아온 다른 동물들도 모두 마찬가지로였다. 박사가 자기들 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된 동물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해 준 덕분에 치료는 쉬운 일이 되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 동물들은 모두 형제와 친구들에게 큰 정원이 딸린 작은 집에 진짜 의사가 살고 있다는 말을 해 주었다. 아픈 동물은 누구든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박사의 집으로 찾아왔다. 말이나 소나 개뿐만이 아니었다. 들쥐, 물쥐, 오소리, 박쥐 등 들판에 사는 작은 짐승들도 아프면 즉시 박사를 보러 왔기 때문에 그의 넓은 정원은 늘 동물들로 북적였다.

어찌나 많은 동물이 찾아오는지 박사는 종류별로 다른 출입구를 만들어야 했다. 정문 앞에는 '말', 옆문에는 '소', 부엌문에는 '양'이라고 써서 붙였다. 심지어는 쥐들을 위해 지하실로 통하는 작은 굴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쥐들은 박사가 보러 올 때까지 줄을 서서 암전히 기다렸다.

- 1권 『돌리틀 박사 이야기』 중에서

7권 『돌리틀 박사의 정원』과 8권 『돌리틀 박사의 달 여행』은 '달'을 소재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돌리틀 박사의 조수인 토미 스티븐스가 스토리를 끌어가는 화자 역할을 하고 있다.

7권 『돌리틀 박사의 정원』에서는 돌리틀 박사의 정원 일부가 언제부터인가 '동물 마을'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동물들이 찾아와 북적거린다. 돌리틀 박사는 동물의 말, 그중 곤충이 하는 말에 대해 한창 연구중이다. 그러나 함께 여행과 모험을 여러 번 해왔던 동물 친구들은 돌리틀 박사에게 여행을 제안한다. 이번에도 범포가 여행 갈 곳을 눈을 감고 찍었는데, 하필 그곳이 '달'일줄이야. 모두들 달을 상상하며 흥분해 있는데, 거대한 나방이 돌리틀 박사의 정원에 찾아온다. 나방은 스스로 움직이고 말을 할 줄 아는 꽃도 데리고 와 돌리틀 박사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박사는 나방과의 대화 끝에 자신과 동물 친구들을 달로 데리고 가는 임무를 맡았음을 알게 되고, 달을 향해 출발한다.

8권 『둘리틀 박사의 달 여행』에서는 둘리틀 박사와 조수, 그리고 동물 친구들이 ‘달’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 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둘리틀 박사에게 ‘달’은 연구해볼 만한 것들 천지이다. 둘리틀 박사는 자신이 왜 달에 소환되었는지, 이곳 동물들이 왜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지, 커다란 발자국의 주인공인 거인은 왜 그토록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잠시 잊고 식물의 언어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달꽃과 노래하는 나무들은 박사의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된다. 달의 생물들은 지구의 생물들과는 달리, 무척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둘리틀 박사 일행을 달로 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달 인간’임을 알게 된다. 달 인간 자신과 달의 곤충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달 인간은 둘리틀 박사에게 행여나 지구로 돌아가자고 말할까봐 조수인 토미 스테빈스를 몰래 지구로 보내버린다. 둘리틀 박사는 과연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 속에서 둘리틀 박사는 무한 긍정 낙천주의자이기도 하다. 어떤 위기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동물들과 상의해서 지혜로운 결론을 얻어낸다. 휴 로프팅은 암울한 전쟁터에서 스러져가는 동물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딸과 아들에게만은 유쾌하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자 자신이 직접 그림까지 그려 둘리틀 박사 이야기를 편지로 보낸다. 그 편지들이 100여 년 이후까지 전해져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사랑, 모험을 향한 호기심 등을 불돋아주는 것을 보며, 고전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된다.

## 본문 발췌

### 7권

둘리틀 박사의 정원 일부가 언제부터인가 ‘동물 마을’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앞서 어디선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내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온갖 클럽과 단체의 회원 수를 제한하는 일이었다. 회원 수를 늘 일정 정도 이하로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잡종개 아파트의 회원 수가 늘어나는 걸 막는 일이었다. 지프는 날이 어두워지기만 하면 몰래 떠돌이 개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시도했고, 그래서 잡종개 클럽의 회원 수가 너무 늘어나 무질서해지는 걸 막으려면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모든 일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했다.

동물 회원이 정해진 수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나도 박사님도 동의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이 좀 더 재미있고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더 발전하고 커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들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그 아이디어들 중에는 아주 근사한 것도 많았다. 동물 박물관도 그중 하나였다. -본문 11-12쪽

박사님이 도와 달라고 한 것은 동물의 말을 연구하는 일이었다. 박사님은 이 연구를 끈기 있게 계속해 왔다.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박사님의 집에는 나비 사육 상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비와 나방의 애벌레를 부화시킨 다음, 그것들을 방 하나 정도 크기의 화원에 풀어 주었다. 그물을 둘러친 그 화원에는 꽃을 비롯해서 나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말벌과 꿀벌, 개미도 있었다. 물론 특별히 이들에게 필요한 설비와 집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은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곤충들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본문 111-112쪽

대브대브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말에 난 정말이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난 짜증을 내는 일이 별로 없는 데도 말이야.” 대브대브는 오른쪽 날개로 의자에 치즈 가루를 내동댕이쳤다. “내가 말씀드렸어. ‘박사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박사님은 떠돌이 개들을 위한 집도 만드셨잖아요. 쥐들을 위한 클럽도 만드셨고, 다람쥐 호텔과 토끼 아파트 말고도 어처구니없는 걸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하다, 집파리들을 위한 별장까지 생각해 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못 하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차별 없이 다른 동물들을 대한다면, 사람도 동물도 죄다 망하고 만다고요. 어떤 동물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집파리들을 도와주었다가는 인간은 멸종하고 말 거예요.’ -본문 171-172쪽

내 생각에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식구는 박사님이 유일했던 것 같다. 박사님은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서서 범포의 커다란 손이 아직 위에 놓여 있는, 그리고 연필 끝이 달의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는 지도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벌어먹을!” 폴리네시아는 신음 소리를 내며 뱃사람 같은 이상한 발걸음으로 탁자 위를 돌아다녔다.

“여행이라구! 이봐들, 여행이라구! 그래 달이야... 젠장, 범포는 해를 찍을 수도 있었다구. 거기 태양 그림도 있고, 다른 별들 그림도 있잖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

들통에서 빠져나와 이제 지도책 쪽으로 목을 내밀고 있던 거브거브가 말했다. “달에는 무슨 채소가 있을까?”

...

마침내 범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사님, 섬뜩해요. 뭔가 섬뜩합니다. 이건 마법에 걸린 겁니다. 마법입니다. 박사님이 달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어젯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게임을 했는데, 눈을 감고 했는데 제가 바로 달의 한가운데를 찌른 거잖아요!” -본문 215-216쪽

## 8권

우리가 달에서 보낸 처음 몇 시간 동안 난 꿈속에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안 그래도 중력의 영향으로 몸이 가벼워져 허공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누구도 받을 디딘 적 없는 새로운 세계를 걷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자 난 매순간 누군가가 이건 꿈이 아니라고, 넌 제정신이라고 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도 박사님이나 치치, 폴리네시아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하지만 입을 열고 들릴 듯 말 듯하게 속삭일 때마다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울려서 이 모든 경험이 꿈 같다는 생각이 더 커지는 것이었다. -본문 18쪽

우리가 다가갔을 때 폴리네시아는 거대한 발자국 옆에 서 있었다. 그건 어디를 보나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 발자국이였다. 그 발자국은 맨발이었는데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컸고 길이가 3.5미터는 됨 직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 발자국은 강변을 따라 꽤 길게 이어졌는데, 발자국들의 간격으로 이 족적을 남긴 거인의 어마어마한 보폭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무서우면서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던 치치와 폴리네시아는 발자국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듯 아무 말 없이 박사님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박사님이 증얼거렸다. “허! 그러니까 이곳에 인간이 있다는 뜻이군. 세상에, 괴물이야!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본문 57-58쪽

우리는 달에서 여러 식물을 경험했지만 그중에서도 허영심 많은 백합을 만났을 때가 가장 독특하고도 박진감 넘쳤던 것 같다. 허영심 많은 백합의 말에 대한 박사님의 연구는 이틀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박사님은 이 모두가 자신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 허영심 많은 백합이 가진 보기 드문 지능과 우리를 도우려는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사님이 그전부터 다른 나무나 덩굴의 말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다면 백합과 그렇게 빨리 말이 통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셋째 날이 끝날 무렵 치치와 폴리네시아와 나는 존 돌리틀 박사님이 진짜로 이 꽃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고 까무러치게 놀랐다. 박사님과 꽃들 간의 대화는 굉장히 작은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박사님은 이 허영심 많은 백합들이 꽃잎의 움직임에 통해 자기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같은 종이 아닌 식물이나 새, 곤충과 대화할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주로 꽃잎을 흔들었다. -본문 102쪽

육중한 형상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누구나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제 숲을 다 지났다. 모여 있는 곤충들과 기다리던 새들이 다가오는 형상을 위해 길을 터 주었다. 문득 우리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우뚝 서 있는 그 형상의 양옆에 기다란 팔이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형상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마침내 달 인간을 만난 것이었다.

폴리네시아가 경외감으로 인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세상에! 당신은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가 보군요.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끔찍하게도 오래 걸렸네요!” 폴리네시아의 짜증 섞인 비난이 붓물 터지듯 계속되자 심각한 상황인데도 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일단 웃음이 터지자 누가 돈을 준다 해도 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어려웠다. -본문 170-171쪽

## 저자 / 역자 소개

### 휴 로프팅(Hugh Lofting)

미국의 아동문학가이자 삽화가. 1886년 영국 버크셔 주 메이든헤드에서 태어났다.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입학했으며, 1907년 영국 런던 공과대학으로 돌아와 졸업했다. 그 후에는 캐나다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일했으며, 서아프리카, 쿠바 등지에서 철도 관련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1912년 미국 뉴욕에 정착해 지냈으며, 엔지니어 일보다는 글을 쓰는 더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잡지 등에 단편 소설을 써서 보냈다. 1916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아일랜드 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했으며, 참혹한 전투 속에서 말과 개들이 많이 다치고 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으며, 미국에 있는 두 아이에게 편지형식으로 동물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할 줄 아는, 언제나 유쾌하고 낙천적인 돌리틀 박사 이야기를 쓰고 그림까지 그려 보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어 1920년 『돌리틀 박사 이야기』가 출간되었으며, 1922년 펴낸 『돌리틀 박사의 바다 여행』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뉴베리상을 받기도 했다. 『돌리틀 박사의 우체국』(1923), 『돌리틀 박사의 서커스단』(1924), 『돌리틀 박사의 동물원』(1925), 『돌리틀 박사의 캐러밴』(1926), 『돌리틀 박사의 정원』(1927), 『돌리틀 박사, 달에 가다』(1928), 『돌리틀 박사, 달에서 돌아오다』(1933) 등을 차례대로 펴내며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47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생을 마쳤다.

### 옮긴이

**장석봉** \_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단행본 기획을 하며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인류의 문화를 바꾼 물건 이야기 100』

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회색곰 왓의 삶』 『뒷골목 고양이』 『일러스트 동물농장』 『둘리틀 박사의 우체국』 『둘리틀 박사의 동물원』 등이 있다.

**임현정** \_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회사원으로 지내며 글쓰기와 번역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 옮긴 책으로는 『둘리틀 박사의 바다 여행』 『둘리틀 박사의 서커스단』 『둘리틀 박사의 캐러밴』 등 둘리틀 박사의 모험 시리즈를 우리말로 옮겼다.

## 각권 차례

### 7권 둘리틀 박사의 동물원

들어가는 글

#### 1부

1장 개 박물관 : 2장 켓츠 : 3장 휘팅턴의 개 덕 : 4장 아이들의 환대 : 5장 집시 생활 : 6장 곡예사 : 7장 수도원  
8장 절망한 양치기 : 9장 도시 생활 : 10장 은둔하는 개 : 11장 상투머리테리어들 : 12장 개들의 직업

#### 2부

1장 곤충의 말 : 2장 외국산 곤충들 : 3장 굴 : 4장 집에서 사육된 곤충들 : 5장 물방개 : 6장 여행의 끝 : 7장 유배지  
8장 하루살이 : 9장 곤충에 대한 대브대브의 의견 : 10장 거대한 나방 : 11장 선사 시대의 미술가 오소 벌지 : 12장 아직 달이 없던 시절  
13장 긴 화살을 회상하다 : 14장 다시 '눈 감고 여행하기' : 15장 거브거브가 게임을 중단시키다

#### 3부

1장 범포와 마법 : 2장 창문 두드리는 소리 : 3장 거대한 종족 : 4장 거대한 나방이 깨어나다 : 5장 비밀 지키기 : 6장 나비들의 낙원  
7장 거대한 나비의 고향 : 8장 신비한 꽃들 : 9장 달에서 나는 연기 : 10장 투투의 경고 : 11장 심야의 방문자들

#### 4부

1장 범포, 정원에서 사람들을 내쫓다 : 2장 기마경찰대 : 3장 심부름 : 4장 몰래 타다 : 5장 박사님과 다시 만나다  
6장 죽음의 띠와 마주하다 : 7장 달의 양쪽 면

### 8권 둘리틀 박사의 캐러밴

1. 새로운 세계에 착륙하다 : 2. 색깔과 향기의 땅 : 3. 갈증 : 4. 영웅, 치치 : 5. 고원 : 6. 달의 호수 : 7. 거인 발자국  
8. 노래하는 나무들 : 9. 나무 언어 연구 : 10. 달의 마젤란 : 11. 달 일주를 준비하다 : 12. 허영심 많은 백합  
13. 여러 향기를 지닌 꽃 : 14. 꽃을 위한 거울 : 15. 새 옷 만들기 : 16. 달에 대한 원숭이의 기억 : 17. 혐의회  
18. 혐의회 의장 : 19. 달 인간 : 20. 박사님과 거인 : 21. 오소 불러지는 어떻게 달에 오게 되었을까  
22. 달 인간은 어떻게 둘리틀 박사님을 알게 되었을까 : 23. 스스로 왕이 된 남자 : 24. 달에서 진료소를 연 둘리틀 박사님  
25. 다시 퍼들비로